

농촌유학 통해 얻은 좋은 경험 널리

‘전북 농촌유학 한마당’ 개최
행사 기간 문화행사 마련
지역 활성화 보탬 취지도
귀농 결심 사례도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7일 이틀간 전주 왕의지밀 일원에서 전북 농촌유학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유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을 널리 알려 더 많은 학생이 전북농촌유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농촌유학을 다녀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사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 행사에는 농촌유학을 종료하고 원래 학교로 돌아간 학생과 학부모 7가족(27명), 현재 농촌유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20가족(75명)과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시회 관람, 입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6일 전주 왕의지밀 일원에서 '2024 농촌유학 한마당'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여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 농촌유학 한마당' 행사는 7일까지 열린다.

특히 귀농·귀촌을 결심한 1가족(3명)도 참여해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에서는 10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개선해 농촌유학이 더 풍성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며 "농촌유학 종료 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나답게 크는 운동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답게... 즐겁게... 건강하게...’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나답게 크는 운동회' 호응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나답게 크는 운동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운동회에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아동과 현장 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김경환 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유기용 관장), 조록유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구미희 본부장)도 함께했다.

미술쇼와 랜덤 플레이댄스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느린 아동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최현영 단장은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 유관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을 위해 지원을 해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사업이 더욱 확대돼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느린 학습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이 복권위원회, 사랑의 열매 등의 지원을 받아 각 지역아동센터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교육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7-547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국 최초 전자민원신청시스템 도입

전북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속도 개선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요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제안된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드로잉패드·신분증 스캐너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손으로 작성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 사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을 신청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기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스캔만으로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돼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모든 민원인에게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체 위변조 식별이 가능해 신분증 도용 등 범죄행위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향후 전자 팩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도 도입해 민원 신청부터 팩스 발송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자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 패스(One Pass) 민원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공수 총무과장은 "전북 지역은 고령인구 및 다문화가족 등 민원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교폭력 예방·근절 협력체계 강화

전북교육청, 학폭 업무 담당자·학교전담경찰관 등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학교(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53명과,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수사 담당 경찰 43명 등 총 96명이 참석했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과 처리에 따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및 중대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연수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전북교육청-전북경찰청 주요 정책 안내 △협업 운영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 공유 △학교(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강화 방안 마련 권역별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 교육청과 경찰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2학기 수강생 모집

6개 학부 216개 강좌 마련... 1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황갑연)은 오는 14일까지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2학기 교육강좌는 9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지역민의 학습수요 반영을 위해 2학기에 교육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에서 216개 강좌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전문과정을 제외한 전북대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도 마련, 지역민들에게 교육의 다양성도 제공한다.

수강신청은 전북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https://ec.jnu.ac.kr/>), 전화(063-288-0022), 방문(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황갑연 원장은 "평생교육의 필요성

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에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뤄졌다"며 "이번 2학기에도 신규 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제공으로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교육청 직원 대상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2층 강당에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과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운영, 전북 보육 사업 현황에 따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등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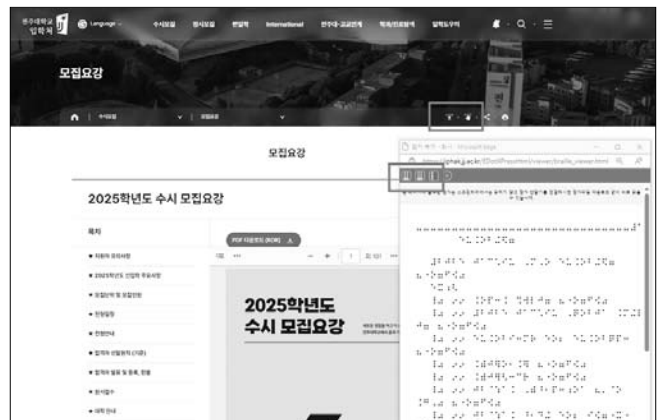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6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를 운영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4대 핵심 과제 추진에 중점을 뒀다.

핵심 과제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필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 주체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보통합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공식업무추진위원회 및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간담회,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 간담회 등을 차례로 개최한 바 있다.

김덕임 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 담당 장학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청 내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기대한다"면서 "전북의 영유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전자 점자 서비스. (사진=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캡처)

시각 장애인의 입시 정보 접근성 높인다

전주대, 전국 대학 최초로 '전자 점자 서비스' 구축

정보 취약계층 입시 정보 격차 해소·교육 평등성 향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국 대학 최초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시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학생들의 전형 이해도 제고와 입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함이다.

전자 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홈페이지상의 전형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교육의 평등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이번 전자 점자

솔루션 도입은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웹 접근성 인증 등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포함된 모든 수험생이 입학 전형

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올해 자유전공학부와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 202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ck.jiac.kr/>)나 전화(063-220-270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 인턴십 진행

국립군산대학교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은 사업단 참여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4주간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계 방학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의 전공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공 기술에 관련한 참여학과 교수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 기간에는 총 9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21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 이론적 학습 외에도 전공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실제 연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능력을 증진시키며, 실무적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